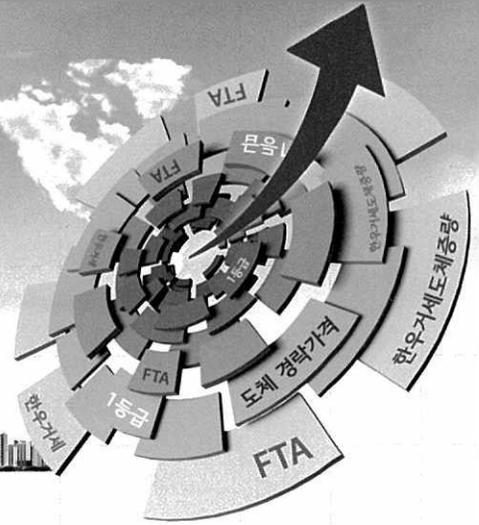


# 소도체 육량등급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R&BD센터 연구개발팀 차장 **선창원**



1980년대 말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한우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시행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쇠고기이력제도를 통하여 생산·유통·소비의 각 단계에서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해오고 있다.

최근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체결과 협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사료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가의 생산비는 증가되고 소비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FMD(구제역) 발생 이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중심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물 소비 등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대책이 다시금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내 한우산업은 지난 20여년 동안 고품질 정책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품질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소도체 등급제도의 근내지방에 대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함과 생산비 증가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게 지적함으로써 그 대책을 강요받고 있다.

축산물등급제도 도입으로 한우 거세 1등급 이상 출현율이 50.5%(98년)이던 것이 81.6%(12년)로

증가하였다. 도체 경락가격 또한 평균 7,774원/kg(98년)에서 14,714원/kg(12년)으로 증가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졌다. 한우거세 도체증량은 325.7kg(98년)에서 416.2kg(12년)으로 증가하여 공급량 측면에서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등 소도체 등급제도를 통한 고급육 생산 정책은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고 있다.

[표 1] 한우거세 도체중량 변화 추이

325.7kg('98) - 342.8('00) - 382.5('04) - 405.3kg('08) - 416.2kg('12)
---

그동안 한우 육질 고급화 정책으로 품질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왔으나 한우 거세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장기비육으로 불가식지방 생산이 많아지고 고기 생산성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육량등급기준을 개정[C등급 육량지수 범위를 상향 조정(11.10.1, 0.70↑, '13.01.01, 0.60↑)하고 등급별 출현율을 고려하여 A등급 육량지수 범위는 하향 조정(13.01.01, 0.30↓)함으로써 불가식 지방 생산량 감소 및 육(肉)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양관리체계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자 생산능가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13.01.01.부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표 2] 육량등급별 육량지수 범위 개정 내용

등급	육량지수			증감 (B-A)
	개정 전(A)	개정 후		
		1단계(2011.10.1)	2단계(2013.1.1)(B)	
A	67.50 이상	67.50 이상	67.20 이상	0.30(↓)
B	62.00 이상~67.50 미만	62.70 이상~67.50 미만	63.30 이상~67.20 미만	-
C	62.00 미만	62.70 미만	63.30 미만	1.30(↑)

개정된 육량등급의 1단계 적용 전·후 각 6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급판정 항목에서 도체중량은 6.6kg로 감소하였고, 출하개월령은 0.9개월(27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농가에서는 C등급 출현율을 낮추기 위해 사양 및 선별 출하 조절 등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C등급 출현이 많은 농가에서는 그동안 출하된 개체의 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도체중량·출하개월령 등의 항목별 성적을 분석하고 개정된 B등급 육량지수 이상으로 출하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15년까지 화우(비육우)의 개량 방향과 목표를 도체중량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출하월령과 출하체중은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사료 효율성 증대를 통한 사육개월령의 단축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개량 방향으로 판단된다.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우리 축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등급제도와 더불어 가축(한우) 개량 및 사양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표 3] 일본 화우(비육우, 거세) 도체형질 목표

구분	출하월령 (월)	출하체중 (kg)	지육중량 (kg)	근내 지방도	5등급 출현율(%)
현재	27.8	695.0	431	6.1	29
목표(15)	24.0	679.0	431	8.0	50

(출처 : 2012 한우 국제종합심포지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요 축산물 수출국에서는 자국의 축산업 보호와 수출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시도하고 국가간 무역협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축산업이 가졌던 대외 경쟁력에 대하여 새롭게 고민하고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주요 축산물 수출국의 마케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입 축산물과 경쟁하고 해외 신흥시장에 우수한 우리 축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12년에 대해 대학교수협의회에서 선택한 사자성어는 '거세개탁(舉世皆濁)'이라고 하였다. 온 세상이 혼탁한 가운데 홀로 맑게 깨어있기가 쉽지 않고, 깨어있다고 해도 세상과 화합하기 힘든 처지를 나타내는 말로 모두 탁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주변 여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지금의 우리 축산업의 현실의 어려움에 비할 만하다.

'13년 계사년에는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의 마음으로 우리 축산업을 강건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생산자는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유통업자는 투명한 유통질서를 소비자는 국내 축산물의 등급에 따른 올바른 선택으로 상호 신뢰한다면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은 새롭게 갖춰갈 수 있을 것이다. **동광연**